



6월 23일 열린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사진아래 가운데)의 제1주제 발표 장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오른쪽)과 중앙승가대교수 미산 스님(왼쪽)이 해주 스님과 함께 선교통섭의 가르침을 설했다. 사진 위쪽은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공안선의 근원 인도 교설 쇄신서 발전

동국대 중학연구소,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서 선과 교학 관계 조명

동서양의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과 불교교학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학연구소(소장 종호)가 주최한 ‘간화선과 불교교학’ 국제학술대회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동국대 강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교리 안에 담겨진 간화선의 요소와 간화선 안의 다른 불교교학적 요소를 탐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우며 간화선으로 대변되는 선과 불교교학과의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국내외 30여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의 활로, 간화선에 있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수불 스님은 “스마트 시대 권위와 신비주의로는 대중들의 믿음을 얻기 힘들다”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행법은 끝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현재 불교계의 수행풍토를 진단했다. 이어 스님은 “선 지식이 화두를 걸어 주고 의단이 타파되는 시스템만 갖추면 간화선으로 불교 대중화

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학자들은 불교교학과 간화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간화선과 교학 수행은 불일부이(不一不二) 학술대회에서 국내 학자들은 불교학의 실천행이 간화선 화두참구의 실천행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화엄학을 전공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은 “간화선의 화두참구와 화엄수행의 보현관행이 유사함을 보인다”며 “해탈법문이 공안이라면 보현관행은 활구화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은 어떤 일이든 화두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보현관행은 내면의 깨달음과 외부의 발현이 함께, 하나여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화두가 참구되는 경지와 관행이 이뤄지는 경지가 무어자재한 부처행으로 이 경지는 선과 교가 불일부이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식학을 전공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간화선을 통해 마음 본래자리를 직시함은 일상 속에서 우리 의식이 마음 표층에 머무르지 않고 심층의 아뢰야식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학을 전공한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는 “중국불교의 특징이 불

성과 반야의 조화”라며 “조사선의 핵심이 바로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천태학과 간화선의 구조적인 연관성에 대해 “화두가 실상을 바로보고 천태가 중도를 깨닫게 함을 이끄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중관학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간화선이 불교적인 수행이 되기 위해선 지혜가 수반되어야 하고 그 지혜는 공의 지혜, 해체의 지혜, 중도의 지혜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학자들 공안수행 새 시각 제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모레이비엔대학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의 발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는 1714년 72책으로 완성된 중국의 《종감법림(宗鑑法林)》에서 1700공안으로 통용되던 기존의 공안이 2720개로 크게 늘어 편찬됐음을 공개했다.

제니퍼 에이흐먼 교수는 “이같은 사실은 당초 이후에도 공안이 고착되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졌음을 반증한다”며 “동시에 지금도 새로운 공안이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태국 마하출라랑관지위달라야대학 프라마 노파돌 사수타 스님도 ‘상좌부 불교에서의 공안에 대한 견해’를 통해 중국 임제종의 공안수행법에 해당하는 수행법이

초기경전, 주석서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사수타 스님은 빨리어로 된 《행복경(大吉祥經)》에 기록된 상좌작용에서 지해로서의 공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대 태국 스님 중 일부가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먹는다’ 등의 공안 수행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좌부불교를 전공한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태국 스님들의 수행은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수행법이며 공안수행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반박했다.

이와모토 아케미 스즈키박물관 주임연구원은 4세기 인도대승불교 초기유가행과 문헌인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분석을 통해 공안선의 근원이 인도불교에 있음을 밝혔다.

아케미 연구원은 “대승불교에서는 전통적인 교설을 쇄신하기 위해 공안선과 같이 중국의 지해를 중시한 수행법을 발전시켰다”고 결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 명예원장은 “한국에서 간화선과 교학은 괴리돼 있었다. 교의 가르침을 방법론에서 선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범 스님은 “항상 깨어있음이 간화선의 핵심으로 그 경지에서 교학과 선은 통섭한다”고 말했다.



세계 불교석학들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마곡사에서 간화선을 실천했다.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실천현장

“숨셔야지 하며 숨쉬는 바보 없듯이 화두 참구도 껌껌함에서 한발을...”

세계 각지의 불교 석학들이 태화산 자락 마곡사에서 화두 삼매에 빠져들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학연구소(소장 종호)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마곡사 무쌍선원에서 개최한 간화선 실천수행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해외석학 30여 명과 국제불교학교 스님 50여명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인 권위자들은 간화선 실천을 통해 한국의 간화선을 체험하며 스스로를 돌아봤다.

일주일 간의 선수행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직접 이들을 지도했다. 매일 아침 9시 간화선 화두법문을 시작으로 수행은 철저한 조사어록에 의해 진행됐다. 방선(放禪) 시간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오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각자의 간화선 수행이 진행됐다. 매일 저녁에는 소참법문이 내려져 각 경계에서의 극복방법과 화두타파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도 했다.

6월 27일 수불 스님은 화두법문에서 타협함과 불리함 없는 매진을 강조했다. 수불 스님은 “무엇이 나오 하여금 하게 했는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손가락을 툇기며 법문을 시작했다.

수불 스님은 “내가 하는 것과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니며 손가락이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나오 하여금 이렇게 하고 있음입니까?”라고 대중에게 물음을 던졌다.

스님은 “숨셔야지 숨셔야지 하며 숨쉬는 바보는 세상에 없다”며 “화두참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고 듣고 느끼면 됐다.

생각할 것 없이 껌껌함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벼를 풀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냥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저런 생각을 갖는 순간을 넘어 화두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스승의 말이었다. 수불 스님의 법문에 이어 참석 대중은 화두참구에 들어갔다. 오전 큰 방에서 모여 참선한 대중들은 오후 각자의 방과 마루 등에서 자유로이 수행정진했다.

간화선 실천 과정에 늘어난 참가자들이 보여준 간화선 실천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에지 슈하라(Eiji Suhara) 박사(미국 피츠버그대)는 “한국에서 5년 가량 공부하고 이후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선과 일본선의 관계에 대해 공부했지만 간화선을 실천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에지 슈하라 박사는 “일본 공안은 스승과 제자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반면 간화선의 화두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국사와 일본 도겐선사의 12·13세기 중국선 수용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에지 슈하라 박사는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게 웃었다.

일본불교통사를 공부하고 있는 마크 슈마처 박사(Mark schumacher)도 “보리달마로 시작된 선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이후 발전된 차이를 발견했다”며 “어렵지만 간화선 수행을 통해 한국불교만의 특색을 이해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마곡사=노덕현 기자 noduc@hynbul.com

“불교계 영문 홈페이지 수준 미달”

국보 범종을 천연기념물로...최희섭 교수 지적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한해 2만 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작 한국불교를 알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영문 홈페이지 대부분이 템플스테이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용어조차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희섭 한국번역학회(전주대 교수)는 7월 2일 양양 휴휴암에서 열린 2012 하기 교수불자대회 ‘불교문화유산의 영어 번역 오류’ 논문을 통해 “조계종 교구본사 25곳과 직영사찰 6곳 중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밝힌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 교구본사 사찰은 용주사, 수덕사, 직지사, 불국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금산사, 백양사, 송광사, 관음사, 선운사 등 12개다. 이외의 교구본사는 영어 안내가 전무하다.

최 교수는 “대부분 무늬만 영어 홈페이지 지어거나 아니면 템플스테이에 관한 내용 뿐”이라며 “그나마 운영 중인 조계종의 종단 영어 홈페이지조차 최상위 메뉴부터 번역 오류가 있는 등 외국인이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덕사 영문홈페이지는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데 약관이 한글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실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중특별교구도 영어 홈페이지는 있으나 접속이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이러한 오류가 불교문화재 안내판 및 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불교문화재의 경우도 원천텍스트가 아예 잘못된 경우가 많다.

국보가 3점 있는 범주사의 불교문화재 안내판 등 일부 사찰의 불교문화재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도 하다”고 각 사찰 별 문화재 1점 씩을 예를 들었다.

최 교수가 예로 든 문화재 중 국보 제 120호인 용주사 범종의 경우 ‘Natural Monument’ 즉 ‘천연기념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문화유산 영어번역도 직역을 함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불교문화 이해에 혼란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국보 제 212호 《대불정여래불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yovuijebosalmanhaengsu neungeomgyeong’ 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한글 경전 이름도 띄어쓰기를 해야 이해가 잘 되는데 영문은 외국인이 이해는 커녕 읽기조차 힘들 정도 힘들 정도”고 말했다.

최 교수는 “주석에도 능엄경인 ‘Suramagma sutra’로 설명했는데 이는 어떤 사전에도 없는 단어로 외국인이 불경인지 알 수 없다. 불교 경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포교의 대상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교문화유산의 바른 번역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불교계와 관련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동국대 HK연구단 연구성과 발표

동국대 인문한국(HK)연구단이 첫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HK연구단은 ‘글로벌컬러의 한국성: 고유성의 탐색’을 주제로 오는 7월 5일 1단계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동국대 중무로 영상센터에서 열리는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인석 HK연구교수의 ‘도론(道論)의유식(唯識) 오종성설(五種姓說)의 이해와 특징’, 이종수 HK연구교수의 ‘조선시대 연동회의 존폐와 그 문화적 전승’, 김영진 HK연구교수의 ‘무량수경 신라주석에 보이는 하늘관념의 변용과

업설’, 이자랑 HK연구교수의 ‘제정일치적 천통(天降)관념의 신라적 변용’, 김기종 HK연구교수의 ‘신라시대 불교극서문에 나타난 변제한문의 성격과 그 의미’, 고승학 HK연구교수의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원력(願力)의 의미’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편, 동국대 HK연구단은 2011년 8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 선정 이후 ‘글로벌컬러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주제로 2014년 8월까지 1단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제61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최근 ‘불교학보’ 제61집을 펴냈다. ‘동아시아 속의 한국불교 사상가’를 주제로 다룬 이번 논문집에는 △승랑과 승조-생애와 사상, 영향과 극복에 대한 재조명(김성철)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식 범상의 지형도-원측 유식과 규기 유식의 동치와 부동치(고영섭) △동아시아 화엄사상에서 의상과 범장의 위상(김전학) △제국에 맞서기: 니시자와 만해(허우성) 등 논문이 실렸다.

또 ‘불교교학’ 분야 논문으로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인간유형 연구-빠알리니까야를 중심으로(정준영) △‘아비달마디파’에서의 비유자와 경량부(2)(권오민) △김시습의 ‘잡저(雜著)’ 연구(이대형) 등이 실렸으며, ‘불교사학’ 분야 논문으로 △석가탑 발견 문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최연식)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31호 발간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최근 ‘불교학연구’ 제31호를 펴냈다. 이번호에는 발표논문으로 △불교의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양승규) △고려에 전래된 ‘개보장(開寶藏)’에 관한 연구(유부현) △시체를 매장했던 슬러려(김성순) 등 3편이 실려 있다.

신앙 전개(한지연) △ ‘종정록’의 관신서(박인석) △한 · 중 선승의 산거시(山居詩) 비교(김상일) △한국 전통가사의 장식과 ‘일월오악도’의 관계성 고찰(자현 스님) △생존지식 욕망에 대한 불교적 검토(조준호) △오승실과 사상체질론을 통해 본 인간 이해(박서연 · 박성식) 등 7편이 실려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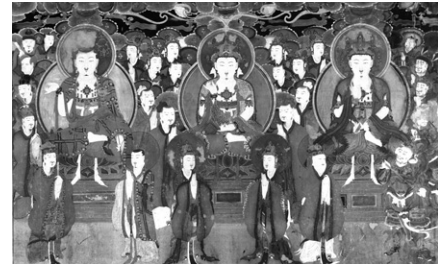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6월 29일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등 8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불교 관련 문화재는 5건이다.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는 천장(天藏)보살, 지지(持地)보살, 지장보살의 세 보살을 표현한 의식을 불화다. 화기에서는 대시주가 18세기 초 대표적인 화승인 의균 스님임을 말하고 있다. 당시 동화사 불화 외에 경주사 창녕 등 타지역의 불화가 함께 제작됐으며 이를 통해 동화사가 인근 화사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는 1728년(영조 4) 동화사 대웅전에 모실 삼단불화를 조성할 때 삼장보살도와 함께 중단불화로 조성됐다. 화기에서는 1728년(영조 4)에 의균, 명찰 스님 등이 불화를 조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진실주집(眞實珠集)’은 1462년(세조 8)에 목판으로 새긴 강경도감판을 10년 뒤인 1472년(성종 3) 6월에 후쇄(後刷)한 것이다. 진실주집에는 승하한 세조 · 예종의 명복과 정희대왕대비 · 성종 · 공혜왕후의 장수를 빌기 위한 것으로 발문 등을 통해 조선 초기 목판인쇄기술의 발달과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왕실의 불교신앙을 알 수 있다.

‘영가진각대사증도가’는 세조·성종 연간(1455~1494)에 율해자(乙亥字) 중자(中字)와 소자(小字)를 사용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15세기 왕실을 중심으로 간행된 불경 표지 장황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장승범수(藏乘法數)’는 대장경에 수록된 명수(名數)를 차례로 배열해 찾기 편하고 이해가 쉽도록 편찬한 일종의 불교학 사전이다. 원나라 간본을 바탕으로 고려 시대에 번각한 것으로 불교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이밖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불랑기자포(佛狼機子袍)’ ‘자치통감 권 131~135, 246~250’ ‘자치통감각목 권 12, 27, 37, 42’ 등 총 8건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기초과정 강좌 개설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용)은 7월 둘째 주부터 종로구 익선동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초보자를 위한 불교기초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기초과정 강좌는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11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30분~8시까지 진행되는 수요일반은 한국불교연구원 상임이사인 임동주 박

사가 지도하며, 7월 13일부터 1년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5시까지 진행되는 금요일반은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종화 박사가 담당한다.

교재는 불연 이기영 박사가 저술한 ‘불교개론 강의’로 월 3만원이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